Bayer, 중국 PU 생산 집중투자

MDI · TDI에 PC 10만톤도 … 2006년 EBITDA 비율 18%로 개선

Bayer MaterialScience가 장기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수익률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Bayer MaterialScience는 2006년까지 3년간 무려 21억유로를 투자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성 향상, 생산체제 최적화, 핵심사업인 PC(Polycarbonate)와 우레탄 원료, 코팅원료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2006년까지 매출액 대비 EBITDA(금리·세금·감가상각비 상감 이전 이익) 비율을 18%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BITDA 비율은 장기적으로 21%까지 끌어올릴 예정인데 ABS 등 바수익사업을 Lanxess에 이양함으로써 주력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Bayer은 2004-2006년 PC와 브랜드 상품의 세계시장이 연평균 8% 성장하고 폴리우레탄이 5%, 도료원료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이 각각 4%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Bayer MaterialScience와 관련된 사업분야의 성장률은 세계 GDP 성장률의 1.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ayer은 현재의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근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2006년에 걸쳐 21억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의 중심은 중국으로 도료원료, PC, MDI(Diphenyl Diisocyanate)와 TDI(Toluene Diisocyanate) 3대 프로젝트가 중심이다.

지방족 Polyisocyanate는 생산능력이 1만1500톤인 '데스모듈 N' 시리즈 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이 1만1000톤인 '데스모듈 L' 시리즈 플랜트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족 Isocyanate의 원료인 HDI(Hexamethylene Diisocyanate) 플랜트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PC는 2006년 생산능력 10만톤 플랜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MDI 프로젝트는 신호탄으로 Polymeric MDI와 Monomeric MDI 설비를 2006년까지 건설하고, 2008년 가동을 목표로 23만톤의 크루드품을 생산설비를 건설한다. Polymeric MDI와 Monomeric MDI 생산설비 건설은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며 TDI는 생산능력 16만톤 플랜트를 2009년 완공할 방침이다.

Bayer은 투자를 통해 현재의 우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비용절감, 생산체제의 최적화 등으로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며, 2004년에는 5000만유로의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또 2002년 8개에 달했던 TDI 생산거점을 2004년 4곳으로 집약한 것처럼 생산체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익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2004년 1/4분기에 15%에 불과한 매출액 대비 EBITDA 비율을 2006년까지 18%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2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7/19>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